

상월결사는 9월 3일 삼보사찰 예비 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상월결사는 인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24km를 행선했다.

설악 정기 받아 '10월 천리순례' 각오 다져

상월결사 9월 3일 삼보사찰 예비순례 성료

만해마을서 백담사 24km 행선
순례단 비롯해 120여명 동참해
자승 스님 안거한 무문관 참배
2일 입재서 '新 불교운동' 발원

인제=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이 설악산으로 이어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3일 인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왕복 24km구간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점검 성격의 이날 순례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과 지원단,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동참해 순례단의 정진을 격려했다.

예비순례는 새벽 3시 대중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됐다. 삼삼오오 만해광장에 모인 순례단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 후 출발했다.

만해마을에서 용대리를 거쳐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가파른 계곡길이다. 언덕길에도 묵언으로 임하는 순례단의 결의에서 천리순례를 앞둔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어둠을 헤치고 앞사람에 의지해 순례단은 발걸음을 이어갔다. 순례 행렬에서는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정근하는 이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백담계곡의 청량한 계곡물 소리가 순례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고, 달빛이 순례단의 앞을 비췄다.

순례에서는 행선 시작과 끝마다 거리두기 속에 발열체크가 시행됐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순례단 뒤에는 구급차와 함께 동국대 의료팀이 대기했다.

순례단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빠른 오전 6시 경 백담사에 도착했다. 세심교(洗心橋)를 지나서 일까. 순례단의 표정에서는 새벽부터 오랜 시간을 걸으며 쌓인 피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부처님과 무산당 오현 대종사 영전에 순례단 도착을 고하며 백담사를 참배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순례단은 도량 곳곳에 흩어져 도시락으로 아침공양을 한 후 회주 자승 스님이 안거에 들었던 무금선원 무문관도 둘러봤다. 순례단 대부분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스님들의 정진에 감동받아 순례에 참가한 이들이기에 쉽게 볼 수 없는 무문관을 둘러본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77세 고령 참가자인 불일심 이태순 불자는 "아홉 스님 수행을 보며 감명 받아 이번 천리순례에 참여하게 됐다. 회주 자승 스님이 정진했다는 무문관을 보니 죽기 전 꼭 무문관 정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며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각오로 천리순례에도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태경 씨는 "상월선원 천막정진을 지켜봤지만 고찰의 무문관은 처음"이라며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정진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불자를 대표해 천리순례 전 일정에 참여하는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청년들에게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닌 찾아가야만 하는 종교였다. 산중과 도시에서 함께 걷고 정진하는 순례를 통해 찾아가는 불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도 출가부터 깨달음까지 삼보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지난해 했던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 점점 발전되는 순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역동적인 불교, 움직이는 불교가 이제는 포교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순례에 동참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천리순례에 대해 "불자들이 불자라고 밝히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불 · 법 · 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며 "삼보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신앙으로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 이번 순례 동행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순례에 앞서 9월 2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입재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순례단은 만해마을 입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 및 참가자 서약 등을 진행했다.

순례단은 입재식에서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세상에 알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 천리순례를 통해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의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30km 오체투지로 평등사회 발원

조계종 사노위, 9월 10일까지 릴레이로

158개 단체 경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21대 국회 정기회 개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오체투지로 차별을 상징하는 공간을 순례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 평등한 사회를 발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 오체투지에 돌입했다.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오체투지 순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시작으로 첫발을 디뎌 국회 정문까지, 10일간 릴레이로 이어진다.

사노위측은 "이번 오체투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경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간절함과 국민 10만 청원의 뜻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체투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발해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19통일평화재단 등을 경유한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해 하루 3㎞씩 오체투지로 단체 2~4곳을 경유하며, 9월10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마지막으로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국회 정문 앞까지 오체투지를 이어간다. 마지막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10만 청원의 뜻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함을 전할 예정이다.

오체투지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 동숭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에서 진행됐다. 평등한 세상을 발원하는 장애인들도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힘을 실었다.

권달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교계 노력에 감사한다. 오체투지는 많은 차별 속에 살았던 소수자, 약자들의 외침이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21대 국회의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에 멈춰있고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에도 무한정 심사만 하고 있다"며 "이번 오체투지를 통해 함께하는 시민단체 158곳과 함께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km 릴레이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위한 의약품 지원

8월28일 서울 법룡사에서
미얀마유학생聯 기도법회

전국비구니회가 군부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 자비온정을 보탰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8월 28일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법룡사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시민봉사 단체에 2800만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마스크와 방호복, 감기약,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등으로 재한미얀마대학생연합회를 통해 현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미얀마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필요한 물건이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물품 지원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 달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재한 미얀마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참석해 발원문을 낭독했다. 연합회는 "군부의 무자비한 살생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오며 저희들의 이 기도와 발원으로 마음속의 모든 생명이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평안함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내신 고우 대종사께서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봉암사에서 영결식과 다비를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우대종사 장례에 함께해 주신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무한경쟁에서 무한향상으로, 중도 정견을 세우고 수행하여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로 돌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길 발원하며 저희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고우 대종사 추모일정(49재) 안내

초재(봉암사)	9월 04일(음7월28일)	오전10시
2재(금봉암)	9월 11일(음8월5일)	오전10시
3재(석종사)	9월 18일(음8월12일)	오전10시
4재(공주 학림사)	9월 25일(음8월19일)	오전10시
5재(축서사)	10월 2일(음8월26일)	오전10시
6재(고양시흥국사)	10월 9일(음9월4일)	오전10시
49재(봉암사)	10월 16일(음9월11일)	오전10시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문의 : 054-571-9088
010-4050-5969

불기 2565(2021)년 9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종립선원 봉암사 · 문도 일동